

광주와 외국인간 소통의 장 10년, 광주국제교류센터 신경구 소장

“외국인이 호감 갖고 광주 세계에 알릴때 흐뭇”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항상 광주 시민에게 또 지역의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지난 1999년 창립 당시부터 10년을 넘게 묵묵히 광주국제교류센터(Gwangju International Center : GIC) 소장을 맡아 일해오고 있는 신경구(전남대 영문과 교수) 소장은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광주·전남 지역민과 외국인간에 소통의 장을 제공하며, 문화이해 증진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비영리 민간단체(NGO)다.

문화이해·민간교류 활성화 목표

신 소장이 교류센터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2002년 6·13 지방선거 이후, 지방선거의 참담한 결과를 보고 “광주를 세계에 알리고 광주의 지평을 바꾸는데 뭔가를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지구촌시민강좌, 한국어교실, 국제교류전문인력양성 사업 등 일 많이 하기로 유명한

단체의 장을 맡고 있어 그는 항상 바쁘다. 신 소장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도 국제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는 상태, 바쁜 와중에도 그는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출근해 센터의 행정업무와 대외업무를 주관하고, 토요일에는 시민강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연결하는 ‘네트워커’(중매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신 소장은 외국인을 지원하고 국내인과의 활발한 교류가 센터의 존립목적인 만큼 교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도 ‘자발성’을 강조한다.

모든 사업에 근간을 자원활동에 두고 자원활동가를 꾸준히 양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광주뉴스’의 경우도 외국인 활동가들이 참여해 만들어 가고 있고, GIC 도서관, 가이아갤러리 등은 외국인이 직접 기획하고 꾸러가는 사업들이다.

외국인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 광주에 호감을 가지고 광주를 세계에 알릴 때 흐뭇하다는 신 소장은 편집장을 포함,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사·편집·교정 등 모든 과정을 거쳐 만들어가는 월간 매거진 ‘광주뉴스’에 대한 자랑도 잊지 않는다. ‘광주뉴스’는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책자로 뿐만 아니

라 광주를 알고자하는 이들을 위한 교재로 쓰일 정도.

신 소장은 교류센터가 10년이상 된 만큼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들을 잘 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회원과 자원활동가 수를 늘리고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내실있는 사업을 꾸려간다는 복안이다. 또 재정·운영상의 문제로 일시 중단되어 있는 외국인 지역문화행사도 곧 재개할 계획이다.

월간 매거진 ‘광주뉴스’ 발간

이외에도 센터는 최근 국제교류전문인력양성과정을 개강하고, 매주 토요일 열리는 지구촌시민강좌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달중에는 영문판으로 발행된 ‘광주 가이드북’ 중국어판 발행과 웹페이지 탑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 소장은 “좋은 프로그램에도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1만2천 명 중 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인원은 300여 명 선에 그쳐 아쉽다”며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폴로 타고 하늘나라 간 조경철 박사

지난 6일 지병으로 별세

“나는 큰 감투도 쓰지 못했고 돈도 벌지 못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 ‘아폴로 박사 조경철’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 ‘시민의 친구’란 애칭이 내게 주어진 가장 큰 감투라고 생각한다.”

지난 6일 별세한 우리나라 대표 천문학자 고 조경철 박사는 3년전 출간한 자서전 ‘과학자 조경철 별과 살아온 인생’(서해문집)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했다.

고인은 두말할 필요 없이 단연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 천문학자로 꼽힌다. 지난 1992년 자신이 설립한 한국 우주환경연구소의 ‘현직 소장’ 직함으로 ‘우주 로켓’(별공작소)이란 저서를 펴내기 불과 석달 전인 작년 12월초 발간할 정도로 천문학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조 박사는 과학의 대중화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실제 두달 전도 채 안되는 지난해 1월 강원 화천군에서 열린 창작살매 콘서트에 소설가 이



동시통역하던 그는 작류 성공의 순간 흥분한 나머지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이 모습이 TV 카메라에 잡혀 훗날 많은 연가자들이 그의 모습을 재연하기도 했다.

196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천문학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고인은 1965~67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 한

아폴로 생방송 에피소드 유명

美 NASA 한국인 최초 연구원

개발에 기여했다. 이어 미국 메릴랜드대 천문학 교수로 재직하던 1967년 당시 한국과학기술자 창설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해외과학자 유치 계획에 호응해 유치 과학자로 귀국했다.

수년전 TV 프로에서 ET로 분장한 이경규의 ‘플래카메라’에 속는 등 여러 대중매체에서 소탈하고 친근한 과학자의 모습으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평북 선천이 고향인 고인은 1947년 입학한 연희대학교(현 연세대학교)에서 천문학 수업을 담당하던 이원철 박사를 만나면서 천문학과 첫 만남을 가진다.

고인은 ‘아폴로 박사’라는 별명을 붙여준 1969년 아폴로 11호 달 착륙 생방송에 관한 에피소드로 유명하다. 주한미국 방송을 보며 현장 상황을

미국인 최초의 연구원으로 과학 탐사로켓에 적재할 광전측광기

로켓에 탑재할 광전측광기 개발에 기여했다. 이어 미국 메릴랜드대 천문학 교수로 재직하던 1967년 당시 한국과학기술자 창설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해외과학자 유치 계획에 호응해 유치 과학자로 귀국했다.

1972년 미국 국무부 우주개발정보 공로 표창, 1989년 헝가리 에오트보스(Eotvos)국립대학 아인슈타인 물리학상, 2002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20세기의 탁월한 과학자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2001년 일본 도쿄대학이 일본인 발견의 소행성(4976번)에 조 박사의 이름을 헌정함에 따라 이 소행성은 ‘CHOU KYONG CHOL’이란 이름으로 국제천문연맹(IAU)에 공식 등록됐다. /연합뉴스

오충현 대령 등 전투기 조종사 합동영결식

지난 2일 공중 전투기 동향훈련 중 강원 평창군 선자령에 추락해 순직한 F-5 전투기 조종사 3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지난 6일 오전 9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기지강당에서 부대장(葬)으로 열렸다.

이날 해남 출신으로 공사 38기를 수석졸업했던 고(故) 오충현(43) 대령, 어민혁(28) 소령, 최보람(27) 대위에 대한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장병 등 5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날 고인들에 대한 영결식은 영현 입장, 조사, 추도사,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 봉송 순으로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으며,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연합뉴스



지난 2일 강원 평창군 선자령에서 훈련 중 추락해 순직한 F-5 전투기 조종사 3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6일 오전 9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기지강당에서 부대장(葬)으로 열렸다. /연합뉴스

‘무소유’ 법정스님 병세 위중

산문집 ‘무소유’로 잘 알려진 법정(法頂)스님(78)의 병세가 위중하다.

조계종에 따르면 최근 3~4년간 지병인 폐암으로 투병하면서 맞쳐주 수술과 치료를 받은 법정스님은 지난 겨울 제주도에서 요양해왔으나 병세가 악화하면서 현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스님은 현재 의식은 뚜렷한 상태지만 병세가 많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1932년 해남에서 태어나 1955년 출가한 법정 스님은 1976년 대표적인 산



법정 스님(78)의 병세가 위중하다. 조계종에 따르면 최근 3~4년간 지병인 폐암으로 투병하면서 맞쳐주 수술과 치료를 받은 법정스님은 지난 겨울 제주도에서 요양해왔으나 병세가 악화하면서 현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스님은 현재 의식은 뚜렷한 상태지만 병세가 많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중문화협회 中 유학생 초청 친선의 밤



(사)한중문화협회(총재 이영일) 광주지회는 지난 5일 히딩크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중국 유학생 100여명을 초청 양국 우호증진을 위한 친선의 밤 행사를 가졌다. (한중문화협회 광주지회 제공)

광주 어린이재단 서강정보대학생에 장학금



어린이재단 광주본부(본부장 최심영)는 최근 사랑의 리퀘스트 대학등록금 406만원을 서강정보대학 응급구조학과 김지희 학생에게 전달했다.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제공)

농협 광주본부 수완지구 유통센터지점 개설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중순·왼쪽에서 여섯번째)는 최근 광산구 수완지구에 광주유통센터지점을 개설, 법인·개인 1호 고객통장 전달식을 가졌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광주 송정농협 조합원 자녀에 장학금



광주 송정농협(조합장 나 훈)은 최근 송정농협 6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대학생 자녀 52명에게 모두 5천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중부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강종백·홍순의씨 장남 경원군 송영순씨 사내 문 설양=13일(토) 오후 1시50분 삼부지구 조전컨벤션웨딩 1층(춘추관)

향우회

▲재광보성향우회(회장 김선주)=12일(토) 오후 6시30분 송암가든. 062-674-1000. 집결지: 구 전남도청앞 오후 6시.

중친회

▲진주강매 광주전남총회(회장 강평원)=13일(토) 오전 11시 광주향교 유림회관. 062-228-3368, 062-672-700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자. 기초생활수급자·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등.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 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일반면접 상담, 위기 가족문제, 자녀문제, 자살 등 상담. 062-223-9191.

▲사주 쉽게 배울 분 개인·단체 환영=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담리화회. 062-263-0208.

모집

▲그림그리기, 백일장 참가안내=13일(토) 2010 광주시자원봉사박람회 부대행사 그림그리기(유치,초등학생), 백일장(중 고등학생) 김대중컨벤션센터 참가접수 및 문의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무산 태권무예술원=영어·태

권도(태글리쉬) 및 대체의료운동(비만,미용,양생,호신,경락심신법) 태권무지도, 남녀노소 3월개강(동구청소년수련관) 070-8235-5688, 010-3374-5699.

▲북구문화원 사회교육강좌 수강생 모집=풍수지리, 생활역학, 명심보감, 관상학, 노태교실. 062-527-7701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 모집=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인종이나, 종교, 외국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는 가정 등. 손님용 숙박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문의 광주시 관광진흥과(062-613-3633), 광주국제교류센터(062-226-2734) ▲베베스다노인요양원 어르신들

모습=노인장기요양보호지정기관으로 관선형의 최신 시설로 건축, 비용부담 없이 최신 시설을 이용하며 전문적인 직원들과 자식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신. 061-371-8090.

▲수공예 문화센터 회원 모집=리본공예·비즈공예·한지공예·CA방과후지도사 전문 자격증, 취미반, 창업반 모집(1대1지도), 비즈공예·리본공예는 무료수강. 수공예 협회서부지구지부(구 송원대학 정문) 062-367-1040, 010-7942-6597.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자 모집=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미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댄스 및 에어로빅, 지원자격은 대학생 및 헌연 봉사자. 문의 061-330-4169.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수시 모집=풍암 초등학교 아침 5시30분~7시 30분. 010-9877-6166

▲용마 축구클럽 회원 모집=건강한 생활 추구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용산 초등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7~11시까지. 011-607-7462.

부음

▲김홍희씨 별세 김내경·철수·철만·미영·미선·미정씨 모친상=발인 9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고익준씨 별세 송민·승철·명운씨 부친상=발인 9일(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마음까지 편안함 - 금호장례식장 227-4000. 故 김수남(남/84세) 062-515-4488. 故 김소녀(여/80세) 062-515-4488. 故 김기영(남/80세) 062-515-4488. 故 김기영(남/80세) 062-515-4488. 故 김기영(남/80세) 062-515-4488.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중앙상조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입문의 1566-4499. 현대중앙상조 전속모델 노주현